

# “야당 텃밭 호남민심 잡아라”...안철수·천정배 구애경쟁

## 신당 세력 주도권 싸움 본격화

야권 신당 추진 세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신당 세력들은 내년 총선 전에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은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향후 신당 세력 간 본격적인 통합·연대 논의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독자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합류로 빠르게 호남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동철·임내현 의원에게 이어 추가 탈당이 예상되는 장병완·박해자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안철수 신당’은 8명의 광주 현역 의원 중 절반을 확보하게 된다.

안 의원은 또 전남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회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동교동계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고문은 조만간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 측 문병호 의원은 “안 의원은 (권 고문에 게) 분당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권 고문은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이날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윤창현 현 광주시장을 전락

안, 권노갑 고문 만나 동교동계 지원 요청...권 “뚝겠다”

천, 탈당 의원들 개혁 대상 규정...안신당과 차별화 시도

박주선, “인물 중심 정당 단명...호남 명령은 통합신당”

공천한 데 대해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설득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광주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전략공천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로 호남 민심을 확실하게 얻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천정배 의원은 안 의원과 손잡은 호남 의원들을 부당한 기득권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안철수 신당’ 쪽에 다가간 현역 의원들에 대해 “그저 자기 정치적 생존만을 앞장세우는 분들이라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당을 만드는데 도로 구당(舊黨)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후퇴라는 우려가 된다”며 “(안철수 신당)이 개혁경쟁이나 새정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등 과거의 행적에 대해 자성하며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다.

천 의원은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앞장섰지만 통합에 실패해 민주개혁세력과 호남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지지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이제 호남정치의 부활과 복원으로 제 몫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만년야당으로 국회의원직이나 유지하고 내부 당권이나 잡고 있어야겠다는 자세에서 환골탈태한다면 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부정적인 안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유지했다.

야권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통합신당추진위 회의에서 “지역 대표성과 유리된 이념정당 또는 인물 중심의 정당은 영향력이 미약하거나 단명했다”며 “호남 민심의 명령으로 시작된 여러 신당 추진 흐름이 하나의 통합신당으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체제’와 새한국시대 비전의 신국가성장동력화를 호남정치 복원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칭 국회의원의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호남 선대위원장’ 카드 검토

조기 선대위 수용...“호남민심 아우를 인사 모시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9일 텃밭인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호남 출신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신이 수용 의사를 밝힌 조기 선대위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호남 출신 인사로 발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당내보다는 외부 영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대위와 관련,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문 대표는 적어도 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분은 호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 선대위원장은 기금적 당내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현역 국회의원 연쇄 탈당이 현실화, ‘호남 제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전남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을 면담하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광주를 찾아 열린우리당 창당을 사과하는 등 신당 세력들이 호남 민심 구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맞불 성격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호남 민심을 아우를만한 인사를 찾기 어려운데다 당내 상황이 어려울 때만 호남 인사들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다는 따가운 시선도 없지 않다.

한편, 문재인 대표 등 당내 주류 진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연쇄 탈당에 대비, 개혁적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문 대표가 광주·전남지역의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들을 추천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사태에 혁신적 인물 영입으로 호남 민심의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2016년 01월 08일(금) ~ 02월 22일(월)**

**JOY TOUR CO., LTD** **패턴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전화(062)234-3222팩스 (062)234-37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1 January							2 Febr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29	30	31	1	2	1	2	3	4	5	6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4	25	26	27	28	29	30	29	1	2	3	4	5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로 겨울방학 가족, 연인과 함께 일본은전 여행을 즐겨보세요!

북큐슈/실속	선착순 24명	4일	성인/749,000원-펜션	어린이/719,000원
북큐슈/폼겨		4일	성인/799,000원-호텔	어린이/769,000원
야마구치/폼겨		4일	성인/899,000원	어린이/849,000원
남큐슈/폼겨		4일	성인/929,000원	어린이/879,000원
		4일	성인/1,049,000원	어린이/999,000원

▶ 무안 ↔ 씨엠림 전세기 ◀

**- 수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4일	성인 /1,10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36홀 /1,450,000 ~ 1,520,000원  
씨엠림 골프 4일 54홀 /1,550,000 ~ 1,620,000원

**- 토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5일	성인 /1,11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54홀+양코르왓관광 5일 /1,550,000 ~ 1,620,000원

※당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계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여행조건: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비용:기내(여행비용:1만원,국내항공 5만원), 관광진흥법제1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체결 ●여행시 경비(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경비없음(단, 기내/기내항공료,선박관광,과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성당에 따라 다름

## 광주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 최우선 2명중 1명 “타지역 이주 고민 했다”

광주시 청년중합실태조사

광주시가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면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쟁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

29일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풀인사이트에 의뢰해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가 청년정책을 실시한다면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부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5.3%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꼽았다.

이어 직업상담 및 직업진로지도 확대(14.7%)·청년문화 활동지원(12.8%)·청년개인의 일상생활비 보조(7.8%)·청년창업지원(6.1%)·대학 등 교육기관지원(5.4%) 등의 순이었다.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로 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예술관광 및 시설이용비 지원(15.5%)·청년 주거지원(15.1%)·대중교통지원(9.3%)·건강 및 의료지원(4.3%) 등의 순이었다.

‘청년 실업의 1차적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58.2%는 중앙정부를 꼽았으며,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확대가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조건 격차완화(24.3%)·중앙정부 고용정책 개발 및 확대(23.5%)·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개발 및 확대(11.5%)·직무연관교육강화(3.1%)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광주는 ‘청년 도시’에 적합한 지역일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61.7%는 ‘부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은 37.5%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5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는 46.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취업기회가 많은 도시’라는 항목은 37.3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 2명 중 1명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만19~24세 55.0% ▲25~29세 47.4% ▲30~34세 53.2% ▲35~39세 36.8% 등이었다.

이들이 이주를 고려한 이유는 취업 및 고용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문화·체육 활동 14.5% ▲교육 10.3% ▲주거 7.9% ▲교통 4.4% ▲복지 3.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사회인식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긍정적 인식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패자부활지수(실패 후 재기가능성)는 55.1점으로 전국 28.8점보다 26.3점 높았으며, 이어 ▲개인의 노력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를 묻는 긍정성지수 40.5점(전국 평균 20.6점)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감 및 협동의 가치를 따지는 협동지수 72.7점(전국 평균 53.6점) ▲미래에 대한 꿈 등 자존감 지수 59.4점(전국 평균 51.6점) 등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